



[산업] SK이노 그린론 5억 달러 조달 헝가리 2공장 증설 속도 06



Life

[라이프] 스포츠웨어 들쭉날쭉 가격에 소비자 혼란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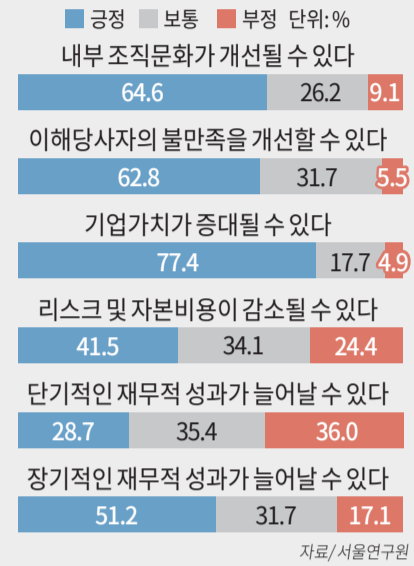
“소셜벤처 생태계 넓히려면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도입해야”

벤처사 77% “CSR, 기업가치높여” 서울시 기업지원으로 CSR 확산해 벤처기업 사회문제 해결토록 도와야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10곳 중 7곳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면 기업 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은 공공의 소셜벤처 지원을 새로운 투자 기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 생태계 외연을 넓히기 위해 서울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서울연구원 이 소셜벤처(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동원하는 기업)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164곳을 대상으로

벤처기업 CSR효과에 대한 인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설문 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경영활동을 하

느냐는 물음에 응답 벤처기업의 30.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CSR 활동을 한다는 벤처기업은 전체의 28.7%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에 달했다.

벤처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는 ‘기업가치가 증대될 수 있다’는 항목의 긍정답변 비율이 7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내부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64.6%), ‘이해당사자의 불만족을 개선할 수 있다’(62.8%), ‘장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늘어날 수 있다’(51.2%), ‘리스크 및 자본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41.5%),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가 증가할 수 있다’(28.7%) 순이었다.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벤처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추구할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제적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벤처기업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다. ‘소셜벤처가 벤처기업과 다르다’는 의견에 설문에 응한 벤처기업의 44.5%가 긍정, 26.2%가 부정, 29.3%가 보통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은 새로운 투자 및 지원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에 벤처기업의 58.5%가 긍정, 12.8%가 부정했다.

주 연구위원은 “벤처기업들은 소셜벤처와 다르다고 인지하고 있지만 공공이나 민간의 투자, 지원이 있다면 벤처기업도 소셜벤처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창업, 중소기업 등 서울시 기업지원 정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을 강화해 소셜벤처 생태계

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들이 에이블테크로 구현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인공지능처럼 신기술을 요구하는 사회문제는 CSR을 확산, 신기술벤처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토록 도와 소셜벤처 생태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주도의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도입도 제언했다. 민간 참여가 저조한 도시문제 분야는 시장경제(수익성 극대화) 기반 기업의 진출을 통한 생태계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다음 성과목표 달성시 공공이 예산을 집행해 투자자에게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이나 사회성과 연계채권 등 ‘사회적 가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남산예장공원 개장... ‘남산르네상스’ 결실

중앙정보부 등 건물 철거 후 녹지 조성 다양한 나무 식재·산책코스 마련

서울시는 9일 중구 예장동에 남산예장공원을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남산의 자연경관을 가리고 있던 옛 ‘중앙정보부 6국’(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만3036㎡(약 3950평) 규모의 녹지공원을 만들어 이날 일반에 공개했다.

공원 하부에는 독립운동가 이회영기념관과 남산 일대를 달리는 친환경 녹색순환버스가 정차하는 환승센터, 40면 규모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생겼다.

남산예장자락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예장)과 녹천정, 주자소 등이 있던 자리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침략의 교두보인 통감부와 통감관저가 설치되고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면서



남산예장공원 전경

/서울시

훼손됐고, 1961년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건물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의 섬’이 됐다. 시는 2009년 남산의 생태환경과 전통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자 남산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12년 만에 남산예장공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지상 녹지공원에는 남산의 고유 수

종인 소나무 군락을 비롯해 18종의 교목 1642주 등 다양한 나무를 식재했다. 녹음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산책코스도 마련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공원 하부 지하공간에 들어선 이회영기념관에서는 ‘남산으로 칼을 연다’라는 이름의 상설전시가 열린다. 후손이 기증한 유물 42점 등이 전시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HSBC은행과 ‘도시숲’ 3곳 조성

훼손된 녹지공간 살려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는 HSBC(홍콩상하이)은행과 ‘도시숲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도시숲 프로젝트는 훼손되거나 방치된 서울의 녹지 공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숲을 만드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2024년까지 매년 1곳씩, 총 3곳의 대상지를 선정해 숲을 가꾸기로 했다. 이 사

업에는 3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도시숲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은 ‘영등포 문래근린공원’ 내 산책로 주변의 훼손된 1000㎡ 규모 녹지공간이다. 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수목을 심어 자연성을 회복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927억 투입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올해 총 92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토대로 무인과속단속 카메라 1266대, 신호기 74

개소, 연속형 과속방지턱 63개소,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비 468억 원, 도비 23억 원, 시군비 436억 원 총 9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운행속도 및 교통신호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차나 주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6월 10일 (木) 음력: 5월 1일

수도권 날씨 22~28°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0 | 해질 / 19:53

지역별 날씨: 연천 19/28, 동두천 19/28, 가평 17/28, 파주 19/28, 서울 22/28, 양평 19/28, 인천 20/26, 수원 21/28, 용인 21/28, 평택 19/28, 백령도 17/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지난해 韓 비트코인 실현 이익 4400억원”
▲ 백신 안료자, 7월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싱가포르 등 협의 /사진 뉴시스

▲ 미 상원, 279조원 규모 신기술 지원 법안 통과...中 견제
▲ 트뤼도, 무슬림가족 뺄소니사고는 “명백한 테러공격”



▲ 파키스탄 열차충돌 사망자, 65명으로 증가...모든 시신 수습 /사진 뉴시스
▲ 캠벨 美 조 장관 “퀵드, 폐쇄적 구조 아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